

무형유산 NGO의 역할 효율성 : 정부와 공동체

투리아나 치리바카야와
태평양제도 박물관협회 사무국장

태평양 지역의 많은 문화 기관이 문화 단체나 기관의 목표 및 목적 이행에서 인력과 역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무형유산 분야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의 청년자원봉사자로서 피지와 바누아투에서 활동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PIMA는 바누아투에서 자선단체, 피지에서 바누아청년개발로 등록된 비정부기관이다. 또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부딪친 여러 쟁점과 과제를 집중 조명하며,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관해서도 중점을 두고자 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무형유산 분야와 전수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 지역의 저명인사나 후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나는 피지의 로마이버티 제도 동쪽에 위치한 모투리키 섬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조부로부터 가두리양식(fish trap) 제작법을 배웠고, 원주민 음식의 안전성과 약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피지에서 배우기 힘든 직조기술도 배웠다.

바누아청년개발 NGO의 일원으로서 피지 정부와 무형유산 공동체 및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무형유산 NGO의 역할 효

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내가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태평양공동체청년전략(Pacific Community Youth Strategy) 사무국에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발전 분야에 대한 참여 독려가 있던 후였다. 나는 정부의 유산문화예술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Culture and Arts)에서 모집한 자원봉사단체의 일원이었고, 청년부(Ministry of Youth) 소속으로 등록된 바누아청년개발(VYD)에서 활동했다. 바누아청년개발 조직이 형성된 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행정지식과 구술 기술의 기본 숙련이 필요한 청년실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2010년부터 2011까지 바누아청년개발 회장을 지냈으며, 피지박물관과 피지예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청년부와 노동부 고용제도를 통해 교통비와 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바누아청년개발은 우리 활동을 지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활동한 조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 바누아청년개발(VYD)

사명

- 피지 나시누 지역의 연수생과 청년 자원봉사자는 협력하자
- 교육에 자신감을 고취하자
- 관계와 팀워크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고, 워크숍 등에 참석하자

목표와 목적

- 팀의 일치단결 활동으로 개인 목표 달성하기
- 청년 지도자가 다른 청년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방식에다 초점 맞추기
- 기술과 경험이 노련한 조연자로부터 경험과 지식 구하기
- 사무국의 개별 프로젝트 지원으로 공동체, 정부 부처,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에 청년층 참여 활성화하기
- 워크숍을 활용해 청년층의 문화 분야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평가하기

2013년 위원회 현황

- 회장: 투리아나 치리바카야와(현 회장: 콜린 탕)
- 부회장: 조지 로콜라(현재 정보통신부 활동)

- 총무: 로사 투라가이비우(현재 문화부 활동)
- 부총무: 아세나카 라투블리(현재 남태평양종합대학 OLPC 프로젝트 활동)
- 재무간사: 바시세바 쿨리(현재 문화부 레부카 세계유산 프로젝트 활동)
- 부재무간사: 일리에서 부투이발루(현재 사법부 활동)
- 전 고문: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태평양유산허브 간사)

성과

젊은이들은 피지 및 태평양 지역의 문화 분야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 후 자금 확보 때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년들은 숙련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배운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하는 법을 배웠다.

II. 피지공예협회(Fiji Craft Society)

무형유산 전승자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타 기관으로 피지공예협회(FCS)가 있다.

배경

FCS는 피지의 수바에서 열린 1999년 세계공예위원회 국제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 협회는 피지예술위원회 산하 공식 기관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 협회 사명은 여러 분야의 기술 및 공예기술을 개발해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계유지 및 사업 발전과 관련해 유산 전승자에게 좀 더 많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매트나 바구니 직조, 마시(전통 삼베) 제작, 조각 등 여러 분야의 공예장인 20여 명이 무형유산 전승자로 등록되었다.

FCS의 목적

- 공예기술을 최고의 숙련 단계로 끌어올리고 유지
- 여러 형태의 공예에서 전문 기술 터득
-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공예기술 개발과 향상
- 피지 국내외 유산과 예술의 진흥과 관련한 피지예술위원회 및 기타 협회와 협력
- 국내·지역·국제 전람회 등에서 피지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 공예 장인 선정
- 기존의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협회 인프라와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미래 기회 추구

집행위원회 회원

- 회장 : 세닐롤리 소베아(코코넛 섬유 직공 기능 보유자)
- 부회장 : 라바이 마세우(로투만 고급 매트 직공)
- 총무 : 투리아나 치리바카야와
- 재무간사 : 투리아 세두아두아(피지예술자문위원회)

FCS는 현지 또는 국내의 예술전에서 기량을 떨친 전통예술 및 공예품 분야의 예술 실연자들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신청서 작성 및 비자 신청, 전시기획에서부터 2011년 뉴질랜드 럭비월드컵에서 열린 피지공예협회 홍보까지 다양했다. 문화산업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모으고, 수많은 관객과 함께 즐기는 인기 스포츠 행사 및 문화 부문의 접목 업무를 맡았다. 또한 FCS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협회의 육성에 관여했다.

III. 지역 차원에서의 활동

솔로몬제도에서 태평양예술축제가 진행된 당시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소속으로 축제에 참가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홍보에 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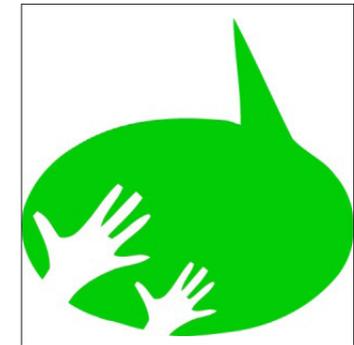
1차 PIMA/ICOMOS 청년유산워크숍 개최 배경

제1회 청년유산 워크숍은 PIMA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파시피카의 주관 아래 제11회 태평양예술축제의 일환으로 2012년 7월 4-6일 개최되었다. 태평양예술축제는 태평양을 아우르는 행사로 4년마다 열리고, 매년 다른 국가가 주최한다. 이 축제는 솔로몬제도, 특히 호니아라와 일부 위성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주요 목표는 로고 '젊은이여, 목소리를 내라'에서 잘 드러난다. 축제의 주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문화'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은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태평양 지역의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고안되었다. 워크숍 활동은 모두 이 목표 아래 수행되거나 목표 보완 역할을 했다. 워크숍의 중요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설계한 태평양 지역 유산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으로 만들어졌고, 이 행동 계획은 이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에서 청년층의 의견 개진 활성화에 사용될 것이다.



젊은이여, 목소리를 내라! 로고



PIMA로고

참여 국가

팔라우, 나우루, 피지, 사모아, 호주, 뉴질랜드(마오리), 솔로몬제도, 니누에, 통가, 바누아투, 하와이, 미크로네시아 연방, 괌, 타히티.

IV.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나는 이곳에서 총무로 자원봉사하면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행정 지원 및 PIMA 웹사이트 구축을 도왔다. PIMA 사무총장은 뉴질랜드 출신의 타리시 부니딜로, 당시 의장은 피지 출신의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였다. 태평양 지역의 회원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괌,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출신들로 구성된다.

배경

PIMA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다언어, 정보관계망, 비정부기관 조직이다.

- 태평양 제도 유산 보전을 위해 태평양 지역 박물관, 문화센터, 관계자들을 지원
- 유산 관리에 공동체 참여 방안 개발
- 문화 및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역량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태평양 제도 내의 박물관과 문화센터를 한 곳에 모음
- 지역 문화자원 관리 정책과 업무의 발전 도모, 교육 촉진, 다양한 생각과 전문 기술 교환 등 지원

- 태평양 지역 유산 보전을 지원하는 지역과 국제 연계망을 제공 및 권장

PIMA 목적

- 지역 내 박물관과 문화센터의 관심사 및 우려 사항 대변
- 태평양 제도 유산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관련 기관을 한데 모으는 의사소통 연계망 개발
- 조언, 교육, 접근 가능한 활동 등으로 PIMA의 목표에 공동체의 참여 강화
- 교육과 훈련으로 인력 자원 강화
- 윤리성과 기준 개발 및 강화
- 유산 관리 및 정책 관련 각 정부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
-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복원 활성화

나는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 보호 활동을 하는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 자매기관인 ICOMOS 파시피카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9년 타히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행정 지원을 했다. 2010년에는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되는 ‘멜라네시안 예술 축제’에 참가했다.

PIMA를 통해 솔로몬제도에서 2010년과 2012년에 열린 태평양예술축제 기간에는 2009년에 피지와 솔로몬제도에서 선보인 우토 니 알로(Uto ni yalo)와 같은 재공원에 토착향해협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무형유산 NGO의 정부 지원

무형유산 정보 구축 및 공유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쟁점에 대한 현장조사(피지)를 실시하였다.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개발한 질문서를 활용하여 무형유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쟁점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바누아투 무형유산 보호 활동

나는 바누아투로 가서 바누아투문화센터에 위치한 PIMA 본부에서 활동했다.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수석조정관이자 연구원으로서 바누아투문화센터(Vanuatu Kaljoral Senta)에서도 일했다.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제공한 질문서의

도움으로 수행한 이 조사는 바누아투 5개 지역의 전통무용단을 대상으로 바누아투 무형유산의 보전, 영향력, 해결 방안 등을 실시했다. 내 역할은 PIMA의 자원봉사자로서 피지와 태평양 지역의 많은 NGO의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조하는 일이었으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및 여러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피지	바누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문화예술부 • 피지원주민부 • 피지예술위원회 • 피지박물관 • 법률구조기관 • 피지수공예협회 • 태평양공동체 사무국(S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 바누아투문화센터(VKS) • 국립박물관 • 국립기록보관소 • 말라콜라문화센터, 타페아문화센터 • 국립문화위원회 • 암브림, 펜테코스트, 방크스, 타나, 말레콜라 등 지역 고전무용단

무형유산 진흥 및 보호 활동의 관련 조직(피지와 바누아투)

두 편의 동영상은 이 지역 전통 향해술 복원에서 필요한 우선 사항의 주 내용과 BBC가 영상으로 제작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상어와 바다거북을 통해 문화와 자연 간의 독특한 연계를 잘 요약해 놓았다. 동영상은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유산 종목으로서의 전통 향해술과 가옥 축조술이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계에 필요한 기후 변화 적응과 복원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동영상을 제공한 피지박물관의 엘리아 나코로 씨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당면 과제

- 태평양 지역에서 눈길을 끈 당면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이 지역 국가의 무형유산 관련 정보 제공자와 기록자들의 사망
 - 무형유산 보호 활동과 기후 변화의 위협을 계속 기록하고 문서화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태평양 지역 단체에 자금을 지속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원 부족: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무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장비,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인터넷 접근성 등을 위한 기본 자금 필요
 - 구형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보충 훈련 필요

-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교육하는 젊은 층 대상 워크숍 필요
- 55세 정년퇴직 정책 유지로 잦은 피지 고위직의 인사이동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 의지가 제한되면서 일부 국가의 무형유산 지원 프로그램 및 후원이 빈약해짐

지금까지 개발 부문의 젊은 인력을 지원한 무형유산 옹호자의 후원 덕분에 NGO와 정부, 태평양 지역 NGO 협력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의 활동 기록 및 활성화가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여 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무형유산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약을 그치지 않고 보여 주기 바란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역량 강화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역할

유재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

머리말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유산의 원형 보전에 노력해 왔다. 무형유산은 인간 생활의 여러 복합 요소를 포함하며, 유형문화재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 지원 등 여러 제도를 기반으로 보호하는 한편 세계 무형유산 보호의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문화유산 보전 관리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해 온 방식에서 각종 단체나 민간 부문, NGO의 역할로 옮겨 가고 있는 추세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서는 지역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무형유산 자문기구로서 NGO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무형유산의 종합 기구로서 국립무형유산원(NITH)이 출범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지원, 조사연구, 기록화를 비롯해 무형유산의 진흥을 위한 공연 및 전시와 국내외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